

교육열엔 불황 없다

학비 年 500만~800만원 불구 광주 사립초교 입학 경쟁 치열

세계를 뒤흔든 경제공황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만큼은 비껴갔다. 연간 수업료가 웬만한 사립대학 등 독급 수준인 광주 시내 사립 초등학교 경쟁률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사립 초교와 비슷한 교육환경의 국립 초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 추첨이 실시된 4일 오전 이 학교 강당에는 40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며 추첨결과를 지켜봤다. 남자 초등 입학학생 48명의 명단이 확정되자 학부모들의 얼굴에 희미가 었었다. 여학생 추첨을 실시한 오후에도 같은 풍경이 연출됐다.

이 학교 내년 신입생 정원은 96명. 남자 372명(7.75대 1), 여자 406명(8.4대 1) 등 77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1대 1을 기록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조건이 국립초교와 같아 학부모 부담이 적은 데다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소문 때문에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연간 학비가 수백만원인 사립 초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신입생 선발을 마친 삼육초교에는 104명 모집에 200명이 몰려 경쟁률 1.9대 1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4대 1보다 높은 수치다. 불경기지만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열기는 뜨겁다.

삼육초교는 '일반반'과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영어 이머전반'으로 신입생이 등록을 위해 내야할 돈을 입학금(60만원)과 수업료(135만원)를 포함해 모두 195만원에 달한다.

4번에 걸쳐 나눠내는 수업료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학금을 포함해 총 600만원이며, 스쿨버스 이용비와 급식비, 약기나 컴퓨터 등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방과후 학교 수업 비용 등을 합치면 800만원선을 훌쩍 넘는다. 웬만한 사립대학 수준 이상이다.

영어몰입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반' 학생들의 분기별 수업료도 66만원. 연간 교육비만 대략 500만원 가량이다. '영어 이머전반'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상교육인 국립초교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4일 접수를 마감한 광주 시내 다른 사립초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살례시오초교는 108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해 1.9대 1을 기록했으며, 송원초교는 96명 모집에 259명이 몰려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살례시오초교는 입학금 50만원에 1분기 수업료 66만9천원을, 송원초교는 입학금 50만원에 1분기 수업료 69만9천원을 내야 한다. 이들 두 학교 역시 다양한 부교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학비는 500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조선대로 평균 651만2천원이며 국립대인 전남대는 425만1천원이다. /정성필기자 camus@



4일 낮 광주교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광주교대 부설초교 입학생 추첨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추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태국서 발육인 목포 초등생들 귀국

태국으로 문화답사를 떠난 뒤 공항 폐쇄로 발이 묶였던 목포 '꿈꾸는 요셉 초등학교' 학생 등 80명이 예정된 귀국일보다 4일 앞둔 4일 임시 항공편을 통해 안전하게 귀국했다.

4일 목포 모두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방콕과 2시간 거리의 선교센터에서 머물고 있던 이들은 전날 밤 11시 45분께 방콕 국제공항에서 타이항공 임시편에 탑승해 이날 오전 7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여행사 측이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곧바로 목포로 내려왔다.

지난달 19일 출국한 이들은 9박10일 일정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문화답사를 마치고 28일 방콕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 점거로 귀국이 지연됐었다. /목포=이승희기자 lsh@

10대들 영화처럼 '주유소 습격'

4명이 1분46초만에 430만원 털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그대로 모방해 주유소에서 금품을 털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 J고교 2년 A(17)군 등 4명은 지난달 27일 새벽 3시50분께 광양시 광양읍 S주유소를 털었다. 이들은 복면을 한 채 주유소에 침입했으며 직원 L(46)씨 등 2명에게 돈을 휘둘러 제압하고 현금 4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46초. A군 등은 스타킹을 얼

굴에 뒤집어 쓴 채 순천에서 훔친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주유소에 침입했다. 주유소 직원 L씨는 손으로 착각하고 달려나오다 A군 등이 휘두른 돈기에 맞아 오른쪽 팔이 부러졌으며 이를 지켜보던 인근 LPG 가스충전소 직원 K(72)씨도 이들에게 제압됐다.

범인들은 이어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에 침입, 금고에서 현금 430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999년 개봉

한 한국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장면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들은 범행 전 사전담사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구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영화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기지국 조사,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와 비행 청소년들을 조사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광양경찰은 A군 등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평실기자 kps@kwangju.co.kr

여수 원룸서 불 남녀 숨져

지난 3일 밤 10시20분께 여주시 봉산동 한 주상복합상가 2층 원룸에서 불이나 이 원룸에 사는 윤모(46)씨와 윤씨의 직장 동료인 김모(여·25)씨가 숨졌다. 윤씨와 김씨는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와 원룸 화장실에서 숨진 채 각각 발견됐다.

이 불로 윤씨의 원룸 내부 24㎡가 모두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주상복합상가에는 6개의 원룸이 있었으나 화재 당시 윤씨와 박씨 이외에 다른 거주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들은 "2층 원룸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불길이가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와 의사인 윤씨는 최근 경기지역에서 병원을 개원·운영해왔으나 경기침체로 운영난을 겪자 문을 닫고 여수에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여수의 모 병원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일했으며, 김씨는 같은 병원 총무과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전 다툼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숨진 윤씨와 김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화물질 냄새가 나는 철재용기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암환자 병원에서 자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암환자가 병원 내 샤워실에서 자살했다.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모 대학병원 8층 샤워실에서 환자 김모(51)씨가 피를 흘리고 숨져있던 것을 다른 환자가 발견, 신고했다. 김씨는 말기암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투병생활을 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흥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순천 전공노 간부 파면·해임은 부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4일 이모(42)씨 등 전공노 4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았다"며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대해 반발, 이듬해 초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재균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4일 총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

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재산신고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부인이 가계 운영과 재산신고를 담당해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주도하지 않은 점, 불우이웃을 위해 지역의 재산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9 총선 당시 자신의 빛 5천만원과 부인의 빚, 금융기관 채무 4억여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70) 김동주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실종 군견 찾아라" 대대적 수색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동중이던 군견 한 마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갑자기 사라져 군·경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

○4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순천에서 군 승용 트럭을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중이던 군견(검은색 셰퍼드) 한 마리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백양사 휴게소에서 실종됐다는 것.

○군은 경찰과 119구조대, 마을 주민 등을 동원해 개가 없어진 백양사 휴게소에서 출발 장소인 순천 IC까지 호남고속도로 주변에서 합동수색 중.

○군 관계자는 "승용차량 짐칸에 있는 개집의 고리가 풀려 개가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을 해치지 않는지 개를 발견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리첸 RITCH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광주광역시 북구 동촌동 111-1번지 신도시 2차 분양단지

12월 5일(금) 오픈

제1회 한리상 등반 초목가 세이!!!

1박2일 79,000원

1박3일 99,000원

후지음서

후원: 제주(주)뉴 월드컴퍼니, 협찬: 피월드 고속철리